의안번호	제 429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7월 11일 (제349회)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6년 7월 11일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429

제안연월일 : 2016. 7. 11.
제 안 자 : 건설소방위원장

□ 주 문

○ 한미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배치지역을 이달중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음성군을 포함한 충북 지역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 제안이유

○ 사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사일로 일명 엑스밴드 레이더(AN/TPY-2)에서 발생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인체는 물론 다른 전자기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배치 후보지역에서 극심한 반대를 함

○ 6월 사드 배치지역으로 부대가 있는 음성군이 언론에 거론된 이후 음성군에서는 사드배치 반대 1만명 서명 운동 및 연이은 대규모 집회 등 극심한 혼란과 반발이 심화됨

○ 이에 따라 충북도민의 안전은 물론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음성군을 포함한 충북 지역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을 결의하고자 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장관, 국회국방위원회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 의 안

최근 한미 양국이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발표문을 통해 사실상 방어적 조치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다음해 말 가동키로 하고 최적지를 물색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사일로 일명 엑스밴드 레이더(AN/TPY-2)에서 발생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최소한 3.6㎞ 거리안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5.5㎞내 주택은 모두 이전해야 하는 등 인체는 물론 다른 전자기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해 여러 배치 후보지역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면서 지역적인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6월 15일 한 언론 매체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를 휴전선 인근과 경남 지역에 배치하지 않기로 확인

되었으며, 평택 미군기지 인근 또는 충북 지역 내 특정 장소가 최종 배치 후보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가 위치한 충북 음성 지역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 음성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만명 서명 운동 및 연이어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는 등 충북내 지역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반발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경제적 타당성, 환경문제, 국민 건강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설명도 없이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가까운 시일내 최적 후보지를 물색한다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충북도민은 가만히 넋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만약, 인구 밀집 지역인 음성에 사드가 배치되면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상의 위해는 물론,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충북도민의 지역 여건과 주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경우 충북도의회는 162만 충북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을 결의하고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충북 지역내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음성군을 포함한 충북지역내 사드의 배치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사드배치와 같이 국가 안보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적 협의를 반드시 거친 후 결정하라!

하나, 정부는 충북지역내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 지역 주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라!

2016년 7월 1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